

교회 화보

신령한 예배
진국인문 양생
민족복음의
세계 신로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창간호 764호 **총현교의 사목특행사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성탄절 설교

크리스마스(눅 2:8-14)

12월 25일(목) 성탄축하예배, 오전 9시(1부) 오전 11시(2부)

영아부~유치부는 자체예배로 드리고, 유년부 이상은 1, 2부 예배에 참석 바람
제직들은 오전 9시(1부)예배에 참석 바람



김성관 목사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 베들레헨은 감감한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둡으니 둘러싸인 베들레헨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밤에 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홉 수 없이 깨어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위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소식이 감감한 밤에 양떼를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난한 목자들 앞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고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눅 2:9).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도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치고 웬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의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5).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크게 기뻐했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복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땅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양 있고, 학벌 있

는 평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만일 온 세상을 위한 구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아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유혹하는 모든 쾌락은 사람들을 파멸에 떨어뜨리는 거짓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세상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생활이 현실에서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대면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구주를 알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살으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 외에도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7).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

크리스마스는 단지 목자들에게만 기쁜 날이 아닙니다. 구주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10)입니다. 일찍부터 약속된 메시아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를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과 지혜와 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 오셔서 만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갸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렘 23:17). 여러분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임했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 위대한 소식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싸두는 흔하디 흔한 감에 싸여 구유에 누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눅 2:12 참조).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게 될 때, 그는 화려한 직책을 소유한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 그는 감에 싸여 구유에 누인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겸손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베들레헨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구주를 찾아내어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었을 때, 흥연히 허다한 천군이 이 천사와 함께 왔으니 구유를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도라.”(눅 2:14).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한 천사들의 이 화답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 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참으로 겸손하고 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를 찾아 가게이 베들레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둘러싸고 남과도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기쁜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위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위대한 구주를 알고 계십니까?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구주께 여러분은 얼마나 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한 구유에 누워계신 구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베들레헨 구유로 달려가서 거기에 나신 메시아를 우리의 구주로 경배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찬양하도록 합시다.

Sermon for Next Week

GOD REIGNS

⁴⁴⁽²⁹⁾Then Moses and Aaron went and assembled all the elders of the sons of Israel; ⁽³⁰⁾and Aaron spoke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d spoken to Moses. He then performed the signs in the sight of the people. ⁽³¹⁾So the people believed;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 sons of Israel and that He had seen their affliction, then they bowed low and worshiped.”(EXODUS 4:22-31)

After 430 years of Egyptian slavery, God called Moses to bring Israel up from that land to the land of Canaan in fulfillment of His promise made to Abraham, Isaac, and Jacob(see Gn. 13:15). The land of Egypt was not their home country. The Israelites were Hebrew, and God had promised them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Ex. 3:17). As such, God gave Moses a message to deliver to His people, and their captors. The bottom line was that God reigns! He is a sovereign God. He is an eternal, living God. He is an all-knowing, all-mighty, and always present God. His concern for Israel is the same concern He has for you today. His message to Israel is the same message He has for you today. God will bring you up out of the affliction of this sinful world, and into His heavenly kingdom, if you believe and obey His Word. He, alone, not only has the power to do this, but He, alone, has promised to do this.

God's reign, His power and control, over all(everyone and everything) is an important truth that Christians need to absorb and include in their perspectives concerning reality. The historical account of Israel living in a foreign land, as slaves, for over 400 years under the control of Egyptian Pharaohs was also a reality. The Egyptians needed these Hebrew people to keep their nation running. From a worldly perspective, there was no possible way that they would let them go, but the Living God reigns. He not only was aware of their situation, but He had developed a plan long ago to resolve their sufferings. He called Moses to implement His plan, and His plan was successfully realized because He reigns.

God's ways are truly amazing. Do you know the story of Moses' life? From birth, the world's powers wanted him dead, but God saved him. His life was totally under God's control. He spent 40 years being raised by Egyptian royalty. He received the finest food, shelter, clothing, and education. After giving up his royal beginnings by executing justice toward his own people, he lived for 40 years as a shepherd in the desert. And today, in chapter four of Exodus, God is calling him to move forward in his faith. He tells Moses to return to Egypt, and to tell the Pharaoh, “Thus says the Lord,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vv. 22&23). Can you believe it? God wants Moses, a shepherd with a stick, to tell the king of this earth, the Pharaoh, to give up his main economy. My friend, I'm telling you right now, God reigns!

Today is the last Sunday of the year 2003. I'm telling you that God will lead you. He will guide you to His kingdom. I do not know your particular situation, and even if I did, I probably would not understand it. Nevertheless, I do know that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I know that the Holy Spirit will direct your life because God reigns. The question now is whether or not you believe it.

Believers need to take all God's words seriously. Moses' putting off the circumcision of his son gives us clear evidence, “Now it came about at the lodging place on the way that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v. 24). God had expressly commanded Moses to circumcise his son(see Gn. 17:10). Even though Moses was obeying God's current command concerning Israel, he had not obeyed His past command concerning his son. Moses had to learn that disobeying God and incurring His wrath were more serious than anything that could befall him from the wrath of Pharaoh. When Zipporah, Moses' wife, performed the necessary circumcision to save Moses' life, then the Lord let him alone. Obeying all of God's words, not just some, is truly important. God reigns, and His reign covers every aspect of your life.

When God called Moses, He also called Aaron, his older brother, to be his helper. God said to Aaron, “Go to meet Moses in the wilderness”(v.

27). Aaron went and met him at the mountain of God and kissed him. God made a team, not for their own business or pleasure, but for His purpose. After 40 years had passed, Moses and Aaron came together under God's control. Their meeting was a heavenly meeting, a meeting for believers. In front of them was the enemy. Their people were in a terrible situation, but their meeting brought hope. The future was promising. Moses told Aaron “all the words of the Lord with which He had sent him, and all the signs that He had commanded him to do”(v. 28). He explained to Aaron nothing but the Word of God. He showed him what God had showed him,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ey talked about heavenly things, not human ideas. They believed that God reigns.

Today, we need to talk more about the Bible. We need to focus on the Word of Life. As this year ends, what direction are your conversations taking? What kinds of things are you thinking about? If your discussions concern what great things you have done this past year, or what great things you plan to do this upcoming year, you are making a big mistake. Let's talk about the Word of God. Let's talk about what He shows us, and the signs He has given to us. He is alive. He reigns. Moses talked about the witness of God. He told Aaron that Go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s alive. He told him that this wonderful God wants to use them to save the Israelites. God reigns. Hallelujah!

Now these two people, Moses and Aaron, go to Egypt to meet the Israelites in faith. “Then Moses and Aaron went and assembled all the elders of the sons of Israel; and Aaron spoke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d spoken to Moses. He then performed the signs in the sight of the people”(v. 29&30). Moses and Aaron called the leaders of Israel together to talk about the Word of God, and how much they needed it. They showed them what He had done, and explained to them that salvation is under God's control, His reign. They told God's people that He controls everything, and all they need to do is practice what He says by faith. “So the people believed;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 sons of Israel and that He had seen their affliction, then they bowed low and worshiped”(v. 31). What a blessing! Those who heard God's Word worshipped Him, and those who saw His signs praised Him.

My dear friends, where is your life going? What is your witness? As believers, let's proclaim the cross. Jesus came. He met us, and He died for us. Let's tell everybody He is the Lord. Let's explain to them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Let's show them that He reigns, and because of His reign there is always hope.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eternally live. He died and resurrected, and is now preparing our eternal home. Let's worship and praise Him.

Come to Christ. Be forgiving. In His arms, you will find perfect rest in heaven. Just believe, and you will receive salvation's sure endless life. You shall be blessed forevermore. Come to Christ, receive now the gift of grace, rich and free, and joy and thanks will overflow for the God you've come to know. Come to the cross before His throne, and you shall stand robed in white, in the bright and shining home of eternal light. One and all, only believe, and you will receive salvation sure, endless lif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That is the power of God's grace. He reigns. All you have to do is obey, step by step, and move forward by faith. Moses, Aaron, and all Israel stood lonesome for a time, but God reigns. His love prevails. If you're depressed or in despair, remember God reigns. Respond to His love by coming to Christ. 

통치하시는 하나님

“...²⁹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³⁰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출 4:22~31)



김성환 목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낸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창 13:15~17 참조)을 성취하고자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는 역사의 기록은 실제 사실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서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할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해 내시므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이후 모세의 평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지력, 옷과 교육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족 신분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간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22,23절 참조).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닐 양을 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자신의 사신(使臣)으로 택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지 말라

오늘은 200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설령 제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안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까닭에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속소에서 우리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시니라”(24절).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아들에게 한례를 행하라고 명백하게 명하셨습니다(창 17:10 참조). 모세는 이라엘에게 한 하나님의 최근 명령은 모두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나 과거 명령은 그때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진노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임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모세의 아내 실바라가 모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의 양귀를 베었고, 그에게서 여호와의 모세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남김없이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도 함께 부르사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27절). 아

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으며, 모세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뱀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 두 사람을 묶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지 40년 후에서야 그들 형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신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해내야 할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만나면서 소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하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들”(28절b)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론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늘에 속한 일들을 서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대화와 함께 동안 여러분이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라면, 또는 내일 한 해 동안 행하려고 계획하는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사용하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애굽에 돌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29,30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31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만주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입니다. 예수께서 길요로 전리요 생명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입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인내나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이들을 내어주셨으니 그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직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영생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복음의 은혜로운 초청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 가까워지는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값없이 배려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한 웃을 입고 살 것이며 영원히 빛나는 밝고 찬란한 집에서 있을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A**

장로 칼럼

충현 교회의 조직과 운영

앞으로 50년을 생각하면서



노광연 (장로, 당회서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로 행복하다. 12월을 맞으며 우리는 모이는 때 주일 예배 시간과 다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 헤롯왕과 아기, 천사들이 전해 준 소식, 마리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크리스마스> 시간 시간 성탄절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전에 늘 들어왔던 스토리 위주라 아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코릴린드 어릴 적부터 충현교회에 출회하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아 온 나는 이제 당회 서기의 임장에 있어 교회의 모든 면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감회가 스쳐간다. 요즘은 하나나 앞에 없었던 때 마다 감회가 참으로 깊어졌다. 어느 성탄절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선물이 있었는가? 어느 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해와 의미를 생각했는가?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는 큰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다. 온 교회가 <예수복음 십자가>로 돌아와야 교회는 어찌 될까 많은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 이 일들은 위임사무관들을 중심으로 온 당회원이 하나가 되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살피며 앞장서서 행해 온 결과들이다.

우리 교회는 당회 산하에 16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과 7-12명의 당회원들이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회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살피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간다. 예배위원회는 예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여 예배, 성전, 헌금, 안부를 위한 일들을 실행해 나간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준비를 위하여 특별한 성경을 쓰고 있다. 위임사무관의 주일 설교본은 2개월 전 에 나온다. 모든 예배 순서의 내용(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예배예배 부름의 성가, 성가대, 찬송가, 찬양대의 찬양곡, 헌금시 독창자 등)들은 1개월 전에 공시되어 이를 읽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안부와 헌금을 위해 각 준비된 위원들이 매 주일 예배 시에 수송등도 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여 우리 교회의 5대 목표 중 제1 번째인 신령한 예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찬양위원회는 예배의 모든 찬양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주일과 다신 예배와 수요일 1, 2부의 예배를 위한 찬양대 등 8개의 찬양대(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뱀뱀, 예레, 호산나, 실로마와 5개의 오케스트라, 만도린 연주대, 핸드벨이 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찬양대와 연주대의 예배 관련 일정표를 짜고 각 예배 시의 헌금 독창자들을 선정하고 준비시킨다. 또한 주요교절의 모든 찬양의 일들도 담당하고 있다. 찬양의 일을 이 일을 담당하는 사립들의 신실한 성심과 오우치는 중요한 일기에 우리 교회는 이를 담당하기 위해 상근 찬양감독과 상근 지휘자, 상근 독창자를 두어 찬양의 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해 도록 하고 있다.

제 1, 2, 3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인교 양성을 위해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제1교육위원회는 하렐 전 어린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교생(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학교생(중등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9개 부서를 구성하고 있다.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제3교육위원회는 연맹부를 구성한 30명 30대 30대, 40대 청년부, 50대의 장년 2부, 60대의 장년 3부, 70대의 성의 소망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한 1년 이내의 사람들이 모인 신혼가족부, 지체 부자유자들이 모인 사랑부, 장각장애인들이 모인 애마부, 주일예배 시 유아들을 맡아 돌보는 탁아부, 회화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돌보는 새가족부 등 10개 부서를 구성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총 22개의 교회학교가 있다. 특히 교회학교 중 초등학교부에서 대학부까지는 회교가 50년 동안 열방하여 온 교육 담당 전임교사(위임사무관)를 두어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 구구에 연맹회(모데, 베드로, 바울, 마리아, 루다, 요나, 한나로 구성된 12개 전도부) 각 구구 지역에 노방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대안전도, 전도를 위한 지체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농어촌 전도부는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직능전도부는 군관전도, 경찰전도, 산업전도, 산업전도, 임업전도, 무역전도, 각 직능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충현전도부는 1세대 2세대 전도대원을 양성하고 교회 주변의 각 지체 철 역에 나가 매 주일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선교위원회는 실제로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경주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 중심의 선교를 해 나가고 있다. 2002년도에 100여명, 2003년도에 1500여명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일반전도 의미의 단기선교가 아니라 그따위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지역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실제적인 단기선교를 하고 있다. 이제 전교지역을 순회하며 새로운 2004년을 준비하기 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외국인선교부는 선교사들, 우리나라는 온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육 훈련을 통해 제자를 삼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봉사위원회의 구제부에서는 대내외 봉사, 구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교회 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정기적으로 구제하여 특별한 경우 어려운 형편을 당한 사람에게 구제한다. 재난구호봉사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인 홍수나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에게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부에서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 자원 봉사 활동을 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치량면이다. 매 주일, 교회의 집회가 있을 때에다 교회의 사방에 펼쳐져서 차양의 것을 입을 안내하는 일을 한다. 또한 호스피스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교육훈련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인사 관련 업무를 한다. 교역자 청빙, 직권 직제, 직분자 선정, 각 부서 일관 임명 사항 등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정하고하고 최종 적소에 임명을 하고도 한다.

기획위원회는 교회 내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한다. 연간 계획 세화 및 예산을 수립하고하고 교회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등의 업무를 하고도 한다. 또한 매 주일 발표되는 <주간 충현>의 편집 업무를 맡아 온 회교가 복음적이고 생생한 선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간증을 게재하는 등, 말씀의 전파자 역할을 한다. 또한 <교재연구회>에서는 매 주일 위임사무관의 설교로 각 교회학교의 성경공부 교재를 편집, 제작하여 온 회교가 한 목표, 한 방향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도 한다.

교구위원회는 전 교인들을 행정사무관 18개 구구와 교회 내 내 단독으로 나오는 미혼의 젊은 이로 구구별 젊은이 교구로 나누어 전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물론 개교와 가정의 일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있고 각 구구는 한 회회 또는 한 가정과도 같다. 각 구구는 교구장 장로와 교구지도 목사, 여전도사가 있고, 또한 지역 단위로 지역을 구성하여 한 교구 당 7-12개의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은 안수신자들이 지역장을, 권사들이 부지역장을 맡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5-10개의 구역이 있어 여침사들이 구역장의 일을 맡아 매 주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다. 2003년도에는 지역장들이 단기선교팀의 팀장을 맡아 각 지역 식구들을 이끌고 전교를 다녀 옴으로 영적으로 대량 깨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004년도에는 총 19개 교구 144개 지체, 584구역으로 편성되었다.

행정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특히 주간전도 교회 전체의 사무를 맡아 운영 하는 상근행정부서(직권)를 운영하고 교회 내의 모든 대내외 사무를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기관이다. 산하에는 충현지도대, 충현연수대, 충현어린이집등으로 구구인들은 대내 내들을 도와 나간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의 수입출입, 감사위원회는 교회 내 각 기관의 재정 수입출입 현황을 분기별로, 상근부서는 매 주일 감사하고, 건축위원회는 교회 내외의 건축 관계의 일을 하는데 최근에는 교회전체로 3천 200원을 지내게 되어 대다 노후 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외영양위원회는 교회 내의 3개 법인의 일들을 통합 관리한다.

위원회 외에도 당회장 직할 부서로 충현장학원과 교육훈련연구원 있다. 충현장학회는 매년 전후반으로 나누어 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시 위해 심사, 훈련,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연구원에서는 교회의 전 교육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간다. 특히 1년에 찬양반기에 나누어 실시하는 주간장학공부를 통해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는 일들이 흥미있게 진행되어 나간다. 또한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교회의 구역 구역을 봉사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3개의 비영리법인도 있다. 각 재단에는 각 재단의 정관에 따라 당회원들이 이사 및 감사인 일을 맡아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현교회 지원재단>은 교회 내의 모든 재산과 건물들을 관리한다. <재단법인 충현연수>는 경기도 광주시 묵원리에 있는 공동 묘지이다. 그리고 <충현복지재단>을 두어 충현복지관을 운영, 장안에서 손꼽히는 진정한 복지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상설 부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모임으로 계획되고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대한 결사 사항이 있을 때 전 교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기구이다. 교회의 직권부서 총을 해, 경선을 편성해 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 된다. 제직회를 편성해서는 제직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제직들 앞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 모든 일들을 당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서 돕고, 협의하고, 격려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고 견고하게 꾸려 나간다. 이처럼 당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중심에 서서 일을 감당해 나가기에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 위에서 진행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들은 다 영적이고 신령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당회원들이 진실로 복음에 사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위한 신실소리와 부름들이여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우리 충현교회의 당회원의 면모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다. 사회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스위트 돈 많은 재벌도 없고, 어느 교회처럼 교수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 변호사와 같이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일부 대학 총장들도 구경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한의의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뿌리 깊은 기복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전통과 관행으로 얽혀있는 예전 선례, 존서복자, 친교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대 <예수, 복음, 십자가>가 개하고 그것이 해산되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는 사람들과 그 그대에게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 당회를 볼 때 마다 고린도전서 1장 26-31절에 있는 말씀들 때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제들이 너희를 부름을 보라 유쾌를 따라 지내는 자가 많지 않지만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명 높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밋 밋 있는 것들을 택하시어 것들을 택하시어 것들을 패하시어 하시니 이는 아무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기쁨과 화평이 되었으니 기쁨 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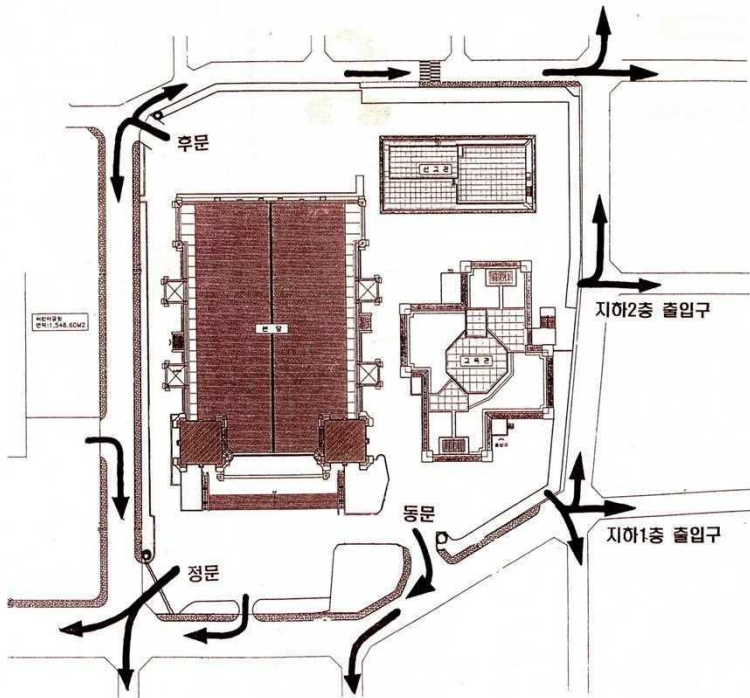
나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며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열 마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생각했다. 수백 겹 떨어진 곳에서 많은 비명과 외침과고 어려운 여정을 마디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보살 것 있는 한 아이에게 풀어 얹어드려 최상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강배를 들은 동방박사의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 바나 지런 자로 우리는 우리의 달은 같지만 다를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갈망으로 50년은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인 교교회로 교교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충현교회라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늘 기다리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회주변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봉사위원회에서는 교회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를 잘 이해하시고 자신이 큰 길까지 가야할 도로를 확인하시고 이대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택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기에 교회 출입 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가 있기에 앞으로 일방통행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면 더 빠르고 기분좋은 차량 소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에도 피차 질서와 예의를 지키며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안내부원들의 인도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전면이 건물 벽을 향하도록 주차하시기 바라고,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 것이며,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24시간 기도 실시

2004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 권사회에서 주관하여 권사들만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던 것을 확대하여 장로, 안수집사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권사회에서 시작한 권사 24시간 기도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교회에 기도의 끈을 이어온 소중한 기도 모임입니다. 이제 장로, 안수집사가 동참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24시간 중 장로와 안수집사는 하루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맡고 나머지는 권사들이 맡게 됩니다. 이 기도는 교회의 5대목표와 계속되는 단기선교, 위임목사와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 및 기타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24시간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9일(화)~12월 17일(수)	L	15교구 3지역	남용철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4지역	이인원
12월 11일(목)~12월 19일(금)	D	8교구 6지역	이정훈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16일(화)~12월 24일(수)	L	6교구 8지역	조석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22일(월)~12월 30일(화)	D	16교구 3지역	이상범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8교구 3지역	안노수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7교구 5지역	전계식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2004 총현 단기선교 CMTC훈련 실시

1. 일시: 2004년 1월 4일(주일) 18:10 ~ 20:20
2004년 1월 11일(주일) 18:10 ~ 20:20
2. 장소: 갈릴리움
3. 대상: 2004년도 단기선교를 지원하는 사람
4. 운영 및 내용
 - 1) 총현 선교훈련(CMTC)은 2주 과정(4시간)으로 한다.
 - 2) 개설: 1월, 2월, 3월, 5월, 6월, 9월, 10월 (첫째·둘째 주일 / 18:10 ~ 20:20)
 - 3)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 4) 운영: 1월 2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일별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5) 수료: 2일 4시간을 수강한 사람에게 수료 확인증을 교부한다.
 - 6) 수강료: 1인당 10,000원(언어훈련 포함) / 학생 5,000원
 - 7) 내용

일자	1교시	2교시
첫째 주	성경적 선교	선교정책
둘째 주	타종교의 이해	세계선교현황

첫째 주 1교시 / 선교의 성경적 기초 2교시 / 총현교회의 선교정책
둘째 주 1교시 / 타종교의 이해(선택식)
1) 정교, 카톨릭 2) 회교 3) 힌두교 4) 불교
2교시 /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여. 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간직하며 지내온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지만 들이켜 생각해보면 최철환 무렵까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생활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예배의 주님께서 공물을 베푸시자 오늘까지 인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더 깊어, 더 넓게 저의 가슴에 비스같이 파고들어 자리 잡아 저의 새 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아멘!’

작년 여름, 스리랑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밀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그분은 진짜라고 주의 공화하심을 힘입어 완연한 눈물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회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물을 얻은 자니라”(벧전 2:10).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먼저 주의 공물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공물을 얻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매시아이고 정녕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라고 이 작고 못한 자를 통해서 새 노릇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도 한번 힘있게 하지 못했으면서 이 먼 곳에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외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아, 주님, 무엇을 공훈하시기 위함이십니까? 정녕 백발백중의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공물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먼 미래일지라도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으며 전했습니다.

저는 올 해 다시 선교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키르키즈스탄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선교의 문은 정말 단단하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 없이 떠난 부족한 자를 발견하고 또 한번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쁘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네 이 말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공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려 참으심을 보시니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함이니”(골 1:15-16).

두 번의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제가 온전히 공물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다시 선교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속에는 산발랴와 도미아 같은 거하는 죄가 허다하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듬고 다시 빚으시 의의 병기로,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회개하기를 권하시는 공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진년 전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진정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몇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정 희(집사, 3교구)

아름다운 기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많은 이름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열어 나를 알게 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당신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우울할 때도 당신은 늘 저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환경되어 있기에 사람과 시간을 저울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어려움 후에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너무 크게 하시는 당신. 감당하기 어려울 파고를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위에 거들너게 하시려는 당신의 온유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시여! 원컨대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누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한걸음의 부끄럼도 없게 하소서. 내 훗날 당신이 부르시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 길에 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손석진)

*손석진 씨는 병원 원동림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선도입니다. 그동안 파킨슨 병으로 발기려 절단 수술 등을 했고 지금도 강남병원에서 투병중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패용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성경공부를 마치고

주님과 의 연합

김종민, 심현숙 (성도, 4교구)



저희 가정의 성경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것에 고민하고 물질을 쫓아다니며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주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통하여 많이 회개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서 새 생명을 주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복 아래 저희 부부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후 주님과 의 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내가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저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도록 기도합니다.

♫ 다음 주일 찬송

34장 “전능왕 오셔서”

이 찬송가는 영국에서 1757년에 나온 것으로 유명한 찬송가 중의 하나이다. 작곡자는 펠리체 데 자르디니(Felice de Giardini, 1716-1796)라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이다. 하지만 작사자는 미상이다.

이 찬송은 성부(1절), 성자(2절), 성령(3절), 삼위일체 하나님(4절)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곡은 1769년 런던에서 ‘시와 찬미극 수필’에 처음 실렸고 그후 여러 종류의 찬송가에 각각 다른 곡명들로 실리기도 했다.

- 1절 :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양해 하시고 찬미게 두소서,
영광과 권능의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적부터 항상 계시니여,
2절 :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주의 능한 팔을 휘러 채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셔서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을 이루주소서,
3절 : 거룩한 위로자여 오셔서 이 기쁜 심령에 주의 거룩한 증거를 주옵소서,
진실하신 성령이여 각 사탄 밑에서 통치하신
권능의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4절 :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없는 찬송이 있을지어다!
저희로 하여금 영광 중에 주의 위엄과 존엄함을 보게 하고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찬한 성도들도 여러급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80	이우자	1 장년부		1489	김진아	15 청년부	문정혜(10)	1498	조영환	19 대학부	이서재(14)
1481	최현자	4 청년부	조수진(19)	1490	최민호	16 장년부		1499	오정훈	19 대학부	이서재(14)
1482	최희숙	5 소망부	문순혜(5)	1491	임정자	16 장년부		1500	박승민	19 대학부	이서재(14)
1483	문혜은	7 청년부	전분희(7)	1492	최나영	16 대학부		1501	박승민	19 청년부	조성훈(15)
1484	문영은	6 청년부	전분희(7)	1493	최지영	16 중등부		1502	원지혜	19 청년부	
1485	손희경	8 장년부	유순영(20)	1494	유선영	19 중등부	염복성(6)	1503	이수진	19 청년부	
1486	남경우	11 청년부	김영수(11)	1495	소수경	19 중등부	염복성(6)	1504	황순국	19 청년부	
1487	김지호	12 청년부		1496	이계원	19 중등부	임혜영(17)				
1488	김민희	15 청년부	문정혜(10)	1497	황기호	19 고등부	황정희(7)				

※ 출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교회 주요행사표

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가을성경학교/가을수련회	교육위		1~2일
		경로심방	교구위		1~2일
01	목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4	주일	신30예배(오전9, 11시)	예배위	1,2교육위	
07	수	성찬식(1차)	예배위		
		헌신예배(교회학,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배위	기획위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14-15	수-목	개척학교 교사 강습회	제1,2교육위	기획위, 교제원	본당, 갈릴리움
25	주일	선교주일	선교위	교육위, 교구위	

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가을성경학교/가을수련회	교육위		1~2일
		찬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총원장학회		
		경로심방	교구위		1~2일
04	수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헌신예배(예배위원회)	예배위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04-07	수-토	전국 찬양대원 강습회(성악)	찬양위		총원기도원
22	주일	학습제례식(1차)	예배위	교구위	
25	수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제이 날)	예배위	기획위, 교구위	4/10 까지

3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3~6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7	주일	성찬식(2차)	예배위		
10	수	헌신예배(선교위원회)	예배위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총원전도대 훈련(찬반기)	전도위		
		남성주요강 훈련	성경연구원	교구위	8주(4/28 종강)
14	주일	제50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교육위	12주(5/26 종강)
		제20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찬양위	12주(5/30 종강)
16	화	주간성경공부 1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교육위	12주(6/2 종강)
17	수	임시 당회(일문 후보 추천)	당회 서기	기획위, 인사위	장로, 안수집사, 권사
21	주	일문 후보 공고(주간총원)	인사위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28	주	공동의회(일문 투표)	당회 서기	기획위, 인사위	장로, 안수집사, 권사

4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3~6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4	주일	총려주일(가족연합)	예배위		
		피폐자 교육 개강	교육훈련연구원	기획위	10/2 까지
05-09	월-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예배위	교구위	
07	수	헌신예배(1,2,3교육위원회)	예배위	1,2,3교육위원회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09	금	성금요일 집회(성찬식)	예배위		
11	주일	부활주일	예배위		
		부활절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실로암찬양대
25	주일	학습제례식(2차)	예배위	교구위	

5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3~6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2	주일	성찬식(3차)	예배위		
		어린이 주일	예배위, 교육위		
12	수	헌신예배(교구위원회 1)	예배위	교구위원회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25	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기획위	교,강,안,권	갈릴리움
30	주일	성령강림주일	예배위		

6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3~6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9	수	헌신예배(안수집사회)	예배위	안수집사회	
		경기 당회	당회 서기		
13	주일	제지회	당회 서기		
16-17	수-목	개척학교 교사 강습회	제1,2교육위	기획위, 교제원	본당, 갈릴리움
27	주일	학습제례식(3차)	예배위	교구위	

7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육위/각기관		7~8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4	주일	성찬식(4차)	예배위		
		택주감사주일 예배	예배위		
07	수	헌신예배(권사회)	예배위	권사회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8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육위/각기관		7~8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총원장학회		
04	수	헌신예배(선교위원회)	예배위	선교위원회의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22	주일	학습제례식(4차)	예배위	교구위	

9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절기구제	봉사위		
		대심방	교구위		9~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5	주일	성찬식(5차)	예배위		
		교회철리주일(가족연합예배)	예배위		
		교회선립기반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아련찬양대
07	화	주간성경공부 2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10주(11/16 종강)
08	수	헌신예배(찬양위원회)	예배위		
		경기 당회	당회 서기		
		총원전도대 훈련(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전도위	8주(11/03 종강)
12	주일	제60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교육위	12주(11/28 종강)
		제30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2주(11/28 종강)
21	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기획위원회	교,당,안,권	

10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9~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6	수	헌신예배(전도위원회)	예배위	전도위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13-15	수-금	절기기초훈련	교육훈련연구원	교구위	
24	주일	학습제례식(5차)	예배위	교구위	
27	수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예배위/당회	교육훈련연구원	
31	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위		

1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신년도 예산안 심의	기획위	각 기관	
		신년도 직분자 심의	인사위	각 기관	
		대심방	교구위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7	주일	성찬식(6차)	예배위		
10	수	헌신예배(교구위원회 2)	예배위	교구위원회	수요2부 예배
		경기 당회	당회 서기		
28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예배위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벤넌찬양대

1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절기구제(성탄)	봉사위		
		단기선교팀 파송	선교위		
01	수	경기 당회	당회 서기		
08	수	임시 당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12	주일	특별 제지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은혜자/근속자 포상	인사위	행정위	
21	화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3교육위		금요집회
24	토	메시아 연합 찬양	찬양위		오전 9, 11시
25	일	성탄축하 예배	예배위		
26	주일	학습제례식(6차)	예배위	교구위	
		공동의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